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4081.15	↓ 코스닥	901.59
	(+70.74)		(-1.71)
↑ 금리 (연율)	2.677	↓ 환율 (원/달러)	1431.75
	(+0.044)		(-5.95)

‘조선협력·투자확대’ 공감대… 韓美 ‘실용동맹’ 신호탄

이재명-트럼프 경주서 두 번째 정상회담

실질 협력 방안 논의 집중
트럼프 무궁화대훈장 수훈
신라 천마총금관 모형 선물
조선산업 협력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안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양국 정상회담은 87분간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 경제·외교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3분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뒤 경주로 이동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한 뒤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 앞에서 대기했다. 잠시 뒤 전통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등장한 ‘더 비스트(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가 멈추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양 정상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뒤 두 달여 만에 재회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앞으로 걸어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 차례 두드리며 짧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방명록 서명, 공식환영식 등을 마친 양 정상은 대표단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진 친교 일

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관 모형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며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하셨고, 이제 다시 한국과 미국이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우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19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AWS 등 글로벌 기업 7곳, 5년간 韓에 13조 투자

APEC CEO 서밋 코리아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애플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관련기사 4면>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

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애플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애플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 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SK하이닉스, 사상 첫 ‘10조 클럽’ (3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11조 3834억원
작년 동기 대비 61.9% ↑

119% 늘었다. <관련기사 3면>

회사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 24조 4489억원, 영업이익 11조 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1.9%, 39.1% 증가했다. 순이익 12조 5975억원으로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김도읍 “전문성 없고 무능”… 김윤덕 장관 “인신공격성 발언” /사진 뉴시스
▲輿 김현정 “청산가리 사건 무죄로 뒤집혀… 법외국죄 필요한 이유”

▲김윤덕 국토장관 “11월부터 주 2회 주택 공급 점검 회의”
▲정청래 “이번 지선 가장 민주적 경선될 것… 의원 눈치 안 봐도 돼”

▲“김현지 감싼 輿, 정권 하수인 자처… 국정농단 다름없어”
▲국힘 과방위원 “‘딸 축의금 파문’ 최민희 사퇴해야… 뇌물죄 수사하라”